

민주당 공천 후유증 일파만파

일부 지역후보 집단 탈당 무소속 출마기로 탈락 광주구청장후보, 전략공천 반발 농성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갈등과 탈락 후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지역 후보들은 집단 탈당에 나섰고, 광주지역 구청장 전략공천에 반발한 후보 및 지지자들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공천 후유증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보성지역 도의원과 군의원 6명은 3일 당의 공천과정에 반발, 집단 탈당했다. 전남도의회 안병태 의원과 임영수 보성군의회 의장 등 보성군의회 5명은 이날 오후 보성군의 회에서 탈당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주당 전남도 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 수십년간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해왔던 수많은 원로당원과 기존 당직자들이 일부 세력에 의해 당직과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 부활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힘썼던 당원들로서 당을 떠나게 되는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 없지만 보성의 민주당은 지난 수십년간 헌신해온 당의 모습이 아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성군민의 공천’을 받아 무소속으로 출마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보성지역 민주당은 신중식 의원이 열린우리당에서 민주당으로 옮겨 온 이후 보성출신인

박주선계와 고흥출신 현 지역구 의원인 신중식 계로 나눠 세 다름을 보여왔다.

광주 서구청장 전략공천과 관련 신현구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이날부터 지지자들과 함께 광주시당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신 후보 지지자 50여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신 후보가 최근 수개월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로서 선두를 달렸는데도 투명한 검증절차를 무시한 채 다른 사람을 전략공천했다”며 “밀실공천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유종필 광주시당위원장은 ‘밀실공천’에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은퇴할 것 ▲조속한 시일내 공청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후보자를 선출할 것 등을 함께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반면한 북구청장 예비후보도 이날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종필 위원장과 중앙당 공직후보자심사특위는 범죄적 전략공천을 전면 철회하고 공특위를 해체한 뒤 새롭게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반 후보는 이어 전략공천 대상자를 포함한 민주당 북구청장 경선후보 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라고 요구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반면한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가 3일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중앙당의 광주 북구청장 전략공천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갖던 중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사명주기자 mjna@kwangju.co.kr

5·31 지방선거 현장

민노당 지사후보 12~16일 선출

○민노당 중앙당 전남도당은 전남도지사 후보를 오는 12~16일 당원 투표로 선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닷새동안 진행되는 이번 투표에서는 전남도당위원장까지 함께 선출한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오는 10~11일이며, 등록결과는 11일 오후 6시 전남도당 홈페이지(www.jeonnam.kdip.org)를 통해 공고된다. 당원 직접 투표와 인터넷 투표로 전남도지사 후보가 선출되면 오는 16일 오후 4시 순천에서 후보자 선출대회를 열어 확정한다.

“목포시장 여론조사 경선 무효”

○최기동 민주당 목포시장 예비후보는 3일 “민주당 목포시장 여론조사 경선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목포지역위원회 시장 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단 한 번도 후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후보자들이 요구한 토론회 개최 조차 목살한 채 특정인에게 공천을 주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후보는 이어 “토론회 없는 경선은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것이며 현지 단체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지적하고 “더욱이 선거를 공정 관리해야 할 지역위원회가 ARS응답 자료를 근거로 당원들의 지지성향을 분석하는 등 구매정책의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최 후보는 지난달 28일 중앙당에 여론조사 경선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해놓은 상태다.

북구청장 후보 송광운부지사 퇴임식

○민주당 광주시 북구청장 후보로 공천된 송광운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3일 전남도청에서 퇴임식을 갖고 지난해 장성군수 출마의사를 밝혔다가 현직인사들의 반발에 뜻을 접었던 일을 상기하며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말로 선거에 임하는 비장한 각오를 피력했다.

또 그의 전략공천에 대해 일부 북구청장 예비후보가 수용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공천 결정 후 한 후보와 통화해 의견이 상당부분 접근했고 다른 인사들과도 대화로 합의점을 찾겠다”며 당내 화합에 크게 신경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전주언씨 서구청장 예비후보 등록

○민주당 광주시 서구청장 후보로 전략공천받은 전주언씨 전주시 기획관리실장은 3일 서구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전 후보는 이날 ‘광주의 중심, 1등 서구 건설’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정병수씨 광역의원 출마 선언

○정병수 열린우리당 광주시장 부위원장은 3일 광주시 서구 제2선거구 광역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썬동동 5·18기념관 주차장 앞 안수빌딩 3층(362-5031)에 선거사무소를 차렸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출마 선언문에서 “이번 선거는 지역성과 중앙정치로부터 벗어나 광주 발전을 꾀하고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광주를 인간과 문화 중심의 행복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여론조사 공천 ‘표본오차’ 논란

1%이하 탈락자 이의신청 많아 신중식 위원장 “공특위서 결의”

민주당의 여론조사를 통한 지방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 ‘표본 오차’ 문제가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예비 후보자들간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결과 1위와 2위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1위를 어떻게 인정하느냐는 것이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출마자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1% 이하의 극히 미미한 차이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3일 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예비 후보였던 신현구씨는 중앙당에 광주 서구의 전략공천이 표본오차 문제를 무시한 채 진행했다며 이

의를 제기했다. 광주 서구청장 예비 후보자들의 여론조사 결과 1위 후보와 자신이 오차범위 내에 있었으나 자신을 탈락시키고 1위 후보자를 타당 후보와 여론조사를 실시, 결국 서구가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신현구 예비 후보는 “당시 서구청장 예비 후보자들간의 합의에는 오차범위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며 “오차 범위에 있는 후보를 어떻게 탈락시킬 수 있느냐”고 역울함을 호소했다.

이같은 표본오차 문제는 담양군 등 전남지역 일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담양지역 도의원 후보 공천 여론조사 결과 1위와 2위 후보의 차이는 0.09%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2위 후보가 중앙

당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또 영광지역 도의원 후보 여론조사 경선에서도 1위 후보와 2위 후보와의 차이는 0.25%포인트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여론조사 기관 관계자는 “후보자들간에 오차 범위내의 차이를 인정한다는 합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지만 실제로 1~2위가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상황에서 1위를 선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중식 공특위 위원장은 “공특위에서 여론조사 결과 예비 후보들간에 0.01%의 차이 하나도 1위로 인정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며 “일부 탈락 후보들의 오차 범위 주장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산구청장 최대 접전지 급부상

송병태 현 청장 무소속 출마 전갈길 민주당후보 공천 확정

송병태 현 광산구청장이 무소속 출마를 밝히고 전갈길 전 국회의원이 광산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함에 따라 광주 광산구가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뜨거운 접전지역으로 떠올랐다.

두 후보는 한 때 민주당에서 한솥밥을 같이 먹던 옛 동지. 하지만 지난 2004년 탄핵정국에서 송 청장이 탈당,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으로 옮겨버린 사이는 벌어졌고 이제는 선거에서 적으로 만났다. 송 청장은 재선 청장으로서 지역내 기반이 누구보다도 튼튼하다고 자부하고 있다. 물론 전 의원도 시의원 3번에 국회의원 한 번을 모두 광산구에서만 해 조직 면에서 뒤지지 않을 뿐 아니라 중앙 정치무대에서 활동한 경력까지 갖췄다고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송 청장은 3일 구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 참신하고 유능한 무소속 출마들과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송 청장은 이날 “이번 선거는 지방정부가 중앙정치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행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갈길 전 의원은 이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당의 전략공천 제의에 따라 광주시장 후보로서 출마의 뜻을 접고 광산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것”을 공식 발표했다. 전 전 의원은 “시장 출마의 뜻은 경선을 통해 민주당의 지지율을 제고시킨다는 취지였는데 잘못 비춰져 마음이 아팠다”며 “16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 3선의 시의원 경험으로 살맛나는 광산구와 광주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민주 광주시장후보 박광태씨 확정



민주당은 3일 중앙당 회의실에서 제 14차 공직 후보자 자 격심사 특별 위원회 (이하 공특위)를 열고 광주시장 후보로 박광태 (사진)씨를 선정했다.

與 광산구청장후보 이상갑씨

열린우리당 광산구청장 후보로 이상갑 변호사(40)가 내정됐다. 이상갑 변호사는 신안 출신으로 광주 서석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96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지체장애인협회 고문 변호사와 민주사회사회 변호사 모인 광주·전남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붕·옥상을라브 우레탄폼 방수전원!
지붕 방수도 되고 단열도 되는 최첨단 산소재

(주)미양주박개발 | TEL: (062) 262-0606 / 262-8458

건설 면허의 모든 것 상업/임도/임수

青碩 C&S TEL: 011-2-8247-0 FAX: 011-2-1067

방수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직접 공사하세요!

드림수방수체 드림코리아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TV방송 출연 교수진!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전국 수석 합격자 배출!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전국 1위 합격률

4월 1일 새강원 시립면 | 새승 행정고시학원 | 361-8111